

제 11회 한일미래포럼 참가 보고서

국민대학교 일본학과
박희진 (パク・フェジン)

2달 전인 6월, 지인을 통해 시마네현에서 11번 째 한일미래포럼이 열린다는 것을 알고 참가를 결심하였다. 지금 만큼은 아니더라도 강제징용 배상문제로 인해 한일관계가 점차 악화되어가고 있었지만 애초에 한일관계에 대하여 관심이 많고, 훗날 하고 싶은 일이 한일관계가 긍정적이 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것, 특히 정부 차원이 아닌 민간 차원에서의 한일 교류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왔기 때문에 참가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학사 졸업논문 또한 '화해이론으로 보는 한일관계~위안부 문제를 중심으로~(가제)'라는 주제와 방향성을 가지고 써내려갈 예정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러한 교류가 앞으로의 한일관계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또한 2018년에 리츠메이칸대학에서 교환유학을 가 있을 당시 소속되어있던 제미(ゼミ) 수업이 매년 참가하고 있었던 '동아시아 대학 생 평화 인권 캠프 제 33회 in 오사카'에 주최측으로 참가하게 되었는데, 그 때 민간 차원의, 특히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세대들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기 때문에 더욱 더 참가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시간이 흘러 포럼 날짜가 다가올수록 한일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고, 한국에서는 일본 여행 및 제품 불매운동까지 일어나며 분위기가 점점 더 험악해졌다. 나의 경우에는 우선 부모님도 그렇고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내가 훗날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잘 알고 이해해주고 있었고, 단순히 일본이라는 이유로 비판하는 친구들이 아니기 때문에 포럼에 참가함에 있어 어려운 점은 없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카카오톡의 한국인 참가자들 그룹의 참여자 수가 하나씩 줄어들었고, 내심 이리다가 포럼이 취소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었다. 다행히도 포럼은 예정대로 진행되었고 다들 포럼 참가를 지원할 때만 해도 한일관계가 이렇게까지 악화될 줄은 몰랐기 때문에 긴장감이 느껴졌던 것 같다. 방송국 취재도 처음에는 불편하고 긴장되었지만 점점 익숙해지고, 오히려 이렇게 방송으로 나가게 되면 당장은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을지 몰라도 이런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활동 일지>

1. 8월 13일 : 첫째 날



첫 날은 같은 토론 조 사람들과 자기 소개 및 토론 방향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다. 너무 딱딱한 분위기가 아니면서도 가벼운 분위기도 아니었기 때문에 딱 편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서로 의견 공유가 원활하게 될 것 같은 느낌이었다. 우리 조의 주제는 '재일조선인·한국인(在日朝鮮人·韓國人)'이었고, 조원 중 두 명이 실제로 재일교포이기 당사자들의 생생한 경험 및 이야기를 들으며 그 외의 조원들은 그러한 재일교포들을 한국인과 일본인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좋은 토론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모든 일정을 마친 후에는 방으로 돌아와 같은 방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같은 방을 쓰게 된 친구들도 너무 좋은 사람들이었고, 만난 사람 모두가 너무나도 좋은 사람들이었다.

2. 8월 14일 : 둘째 날



두번째 날은 필드워크가 있었던 날로 오전에 숙소를 나서 '이즈모대신사'에 다녀왔다. 필드워크 조는 토론 조와는 별개의 조로 또 다른 새로운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어 좋았다. 우리 조를 이끌어 주었던 칸다 유카상이 여기저기 안내해주고 편안하게 구경할 수 있게 해주신 덕분에 즐겁게 활동할 수 있었다. 다 함께 '이즈모대신사'의 입구와 본당 앞에서 사진도 찍고 오미쿠지(おみくじ)도 뽑고 유명한 소바도 먹으며 새로운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었다. 날씨도 너무 좋고, 신사에 찾아가는 길도 지금은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옛날 간이역의 느낌과 풍경도 너무 예뻐기 때문에 필드워크 시간이 짧게만 느껴져 아쉬웠다.





필드워크를 마치고 와서 저녁 식사 전, 첫 날에 이은 두번째 토론이 시작되었다. 전 날 했던 이야기를 토대로 먼저 재일교포 당사자의 입장, 한국인의 입장, 일본인의 입장에서 돌아가며 자신의 의견을 공유하였다.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점차 발표 내용이 정리되어갔고, 재일교포의 과거/현재/미래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기로 했다. 목차를 정한 후, 8명이 서론 담당, 본론의 한국 담당, 일본 담당 이렇게 3팀으로 나뉘어져 본격적으로 발표 준비를 시작하였다. 잠시 쉬는 시간에는 시마네현 로컬 신문사와 인터뷰도 진행하였는데, 부족하지만 덕분에 한일관계에 대하여 나의 생각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다.

저녁식사를 마치고 다시 시작 된 토론 시간에는 이어서 발표 준비를 시작하였고, 2시간의 토론 시간 내에 끝내지 못한 우리 조는 목욕 후 다시 모여 발표 준비를 진행하였다. 대부분의 준비를 끝내놓고 다른 친구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 또 다른 친구들과 만나게 되었다. 토론이라는 공식적인 자리도 좋았지만 모든 공식 일정을 마친 후 편안한 자리에서 새로운 친구들과도 만날 수 있어 좋았다.

3. 8월 15일 : 셋째 날



셋째 날이지만 사실상 마지막 날이었던 이 날에는 점심을 먹기 전 마지막 토론 시간이 주어지고, 점심식사 후 재일조선인·한국인, 젠더·페미니즘, 강제징용, 관광산업의 순서로 4팀이 발표가 이루어졌다. 우리 조는 집행위원이었던 두 명의 조원을 제외한 6명이 발표를 하게 되었고, 2명씩 한 팀을 이루어 서론, 본론1, 본론2와 결론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먼저 서론 팀에서 '재일교포의 정의, 재일교포의 형성 과정, 한반도의 남북분단과 재일교포 사회, 재일교포 단체의 역사, 그리고 재일교포의 유형'에 대하여 설명을 한 뒤, 본론 1의 발표자들이 '한국에서 바라보는 재일교포'에 대하여 과거·현재로 나누어 발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론 2에서는 '일본에서 바라

보는 재일교포'의 과거와 현재에 대하여 말한 뒤, 결론에서 재일교포의 미래를 위해 양국에서 해야할 일을 언급하며 발표를 마무리하였다. 내용적으로 부족했을지 모르지만 우리 조의 재일교포에 대한 발표를 통하여 다시금 재일교포에 대하여 생각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발표를 진행하였고, 많은 질문들을 받으며 우리의 토론과 발표가 잘 전달되었음을 느껴 기뻐다.



우리 팀의 발표 뿐만 아니라 다른 팀의 발표, 특히 '강제징용'문제에 대한 발표는 포럼에 참가하기 전부터 관심이 있었고, 어찌보면 이번 포럼에서 가장 민감한 토론 주제였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나갈지 가장 궁금하였다. 발표에 대하여 감히 평가해보자면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현재 대학생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간 것 같아 감명깊었다. 질문 시간에는 '강제징용' 팀원들 뿐만 아니라 아사히신문 기자님께서 직접 해주신 말씀들도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기억에 많이 남고 유익한 시간이었다.

4. 8월16일 : 마지막 날



마지막 날은 일정이 취소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침 식사를 하고 모두와 아쉬운 작별인사를 하며 공항가는 버스에 올랐다. 3박4일이라는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동안 매일 얼굴을 마주하며 토론하고, 오며 가며 서로 인사하던 친구들과 헤어지려니 아쉬운 마음에 눈물이 날 뻔 했다. 버스에 타서도 창 밖으로 마지막까지 배웅해주는 친구들을 보고 있으니 역시 오길 잘 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민간 차원의 교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보고서를 마치며>



포럼에 참가할 때까지 한일관계가 점차 악화되어가더니 급기야 더 이상 되돌아 갈 수 없을 것 같은 분위기로까지 번져 심적으로 약간의 부담감은 있었지만 다녀와보니 역시 참가하길 잘했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는다. 이러한 행사들을 통해 한국과 일본 양국의 국민들이 한 명 한 명 연결되고, 그러한 인연들이 모이고 모여 큰 집단을 형성하고, 서로의 유대감과 관계가 끈끈해져가다보면 정부와는 별개로 현재의 일본에 대한 반일감정, 한국에 대한 혐한감정은 서서히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와 정치인은 국익은 물론이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서 있기 때문에 우선 표면적으로는 상대국에 대하여 호의적인 발언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곧 부정적인 말과 행동들이 양국 국민들의 정서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 즉, 다음 선거에서도 뽑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면, 선거의 주체는 국민들이므로 국민들의 정서에 맞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다음에도 선택 받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물론 모든 국민들이 일본에 대하여 나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지만 한국과 일본의 지난 수천 년간의 역사, 특히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감정들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자극하는 부분도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은 사람들은 서로에 대하여 뉴스나 신문 등의 매스컴을 통해 접하고, 매스컴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감정적이고 자극적인 부분을 과장하여 내보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중간 매체없이 직접 만나 솔직하게 서로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대화'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정부 차원의 대화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건 국민들끼리의 대화이다. 정치적 이익에서 벗어나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서 하는 이야기는 분명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교감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양국의 미래를 이끌어나가는 주역이 될 젊은 세대들간의 연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작게는 학교에서 교환유학 등의 방법으로 만나는 것부터 크게는 이러한 많은 인원이 참가하는 포럼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 등, 하나가 모여 둘이 되고 셋이 되고, 더 더 많은 인연들이 모여 연대하면 서로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녹아내릴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국민들의 정서를 반영하여 정부 차원에서의 국가 간의 사이 또한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바람이다.